

# 대주주 전횡·무리한 PF 대출 부실 눈덩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 ■목포 흥익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파장

### 파산시 5천만원 초과 예금자 30여명·50억원 피해

지난 1월 광양 대운저축은행에 이어 불과 2개월만에 목포 흥익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또 다시 악영향이 우려된다.

영업정지 명령으로 여·수신 업무가 중단된 16일 흥익저축은행 목포 본점과 광주시 월산동 지점에는 수백명의 고객들이 몰려들어 시급한 대책마련을 호소하며 슬렁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김영구총괄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흥익저축은행 본점이 있는 목포로 파견, 가지급 일정과 규모 등을 논의하고 방문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배경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고객들은 예금자 보호대상인 5천만원이내 예금자가 대다수인데다 전체의 80%가 2천~3천만원의 소액 예금자로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이 다음달 초에나 지급될 예정이라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 고객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또 5월 16일로 예정된 경영정상화 여부판단에서 회생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될 경우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현재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33계좌에 56억9천만원에 달해 파산시 손해를 볼 수 있는 예금자는 30여명, 초과 금액은 5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실의 직접 원인은 대주주의 300억대 불법대출과 전횡, 무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꼽히고 있다. 여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대한 대출과 동일한 한도 초과 대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출업체들의 자금난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예금보호공사는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흥익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권유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의 경우는 '우회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불통이 동종 업계로 뿔치 긴장하는 분위기다.

광주 D저축은행 관계자는 "심리적 요인이 큰 금융기관 특성을 감안할 때 중도해지나 인출러시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비상 회의를 갖는 등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특히 돈을 많이 마트 중소기업에 대출한 경우 자금 압박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경영 부실화는 일부에서 빚어진 현상일 뿐 나머지 대다수 저축은행은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여서 부실이 업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월 19일 광양 대운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금감원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해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이상선기자 stsee@kwangju.co.kr



16일 흥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자 예금주들이 목포 본점을 찾아 영업정지를 알리는 광고문을 읽고 있다. /연철수

## 도내 자산규모 1위...7년연속 흑자 행진

### ■흥익상호저축은행은

흥익상호저축은행은 목포시 산정동에 본점을 둔 '목포 토박이' 저축은행으로, 영업권 확대를 위해 2002년 12월 남구 월산동에 광주지점을 개설했다.

1972년 10월 흥익상호신용공고로 설립된 후 2000년 흥익신용공고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승격되면서 흥익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1986년 전국 저축우수공고로 선정되어 2001년에는 전년 대비 여·수신 증가율이 광주·전남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00~2006년까지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하는 등 광주·전남 대표 저축은행으로서의 건전성을 과시했다. 하지만 대주주의 불법대출 등으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했다.

지난 1월 최대주주가 동강건설 송기룡 회장에서 오세웅씨(지분 78%)로 변경됐다.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두 56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시설

### 흥익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 최소화해야

흥익저축은행이 16일 부실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흥익저축은행은 규모가 전남지역 저축은행 가운데 최대일 뿐만 아니라 광주에도 지점을 두고 있어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흥익저축은행은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하는 등 전남의 대표 저축은행으로서의 건전성을 과시해온 터라 지역경제에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흥익저축은행이 영업정지라는 막대한 골목으로 몰린 것은 사급고처럼 운진을 하는 등 광주·전남 대표 저축은행으로서의 건전성을 과시했다. 하지만 대주주의 불법대출 등으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했다.

지난 1월 최대주주가 동강건설 송기룡 회장에서 오세웅씨(지분 78%)로 변경됐다.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두 56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대입제도 '오락가락' 학생들만 피곤하다

새 대학입시제도가 '교육부 따로, 대학 따로'의 엇박자를 내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8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능 비중을 낮추고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시 요강은 수능 비중을 오히려 강화했다. 교육부가 천명한 대입제도 개혁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신 비중을 높이고 수능성적은 9등급으로 나눠 영역별로 등급점 수만을 제공하는 '수능 9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겠다는 의도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24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지난해 5월 '내신을 50% 이상 반영하겠다'는 공동발표문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들은 최근 2008학

## 차 행자부장관 "퇴출공무원제 바람직"

### 서울시 퇴출후보 250명·차 전남지사도 "무능 공무원 대기 발령"

박명제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최근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공무원 퇴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시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지자체들이 성과주의나 총액 인건비제도 등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에 맞게 잘하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의 영향이 불필요하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흑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하지 않아 배척된 공무원은 다른 실·국·에서라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 자리가 없게 된다"면서 "이런 공무원은 책임이 달한 곳으로 발령해 스스로 깨달도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최후에는 대기 발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4, 15일 이틀간 38계 실·국·본부 및 사업소 전체로부터 인사 대상자 명단을 받은 결과 대상 인원이 1천397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퇴출 후보 3%'의 규모를 별도로 구분해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시 인력에서는 그 대상이 250~260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한나라 고진화 의원 "DJ, 방북 적극 추진해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고진화 의원은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남북 간에 평화무드가 흐르고 있는 만큼 김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논란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 공직자 음주운전 공소시효 10년으로 단축

### 靑, 인사검증 기준 완화

청와대는 최근 인사검증시 공직자가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음주운전 공소시효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음주운전 시 승진 불이익 기간도 음주운전 위반 정도에 따라서 6개월부터 1년까지 구분해서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중순에 인사추천회의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인사검증시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인사 지침을 마련했고, 이를 각 정부 부처에 시달렸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청와대가 마련한 새로운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공직자 음주운전의 시기는 기존의 20년 이내에서 절반인 10년으로 단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대수가 1천만대를 돌파하고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언론홍보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것이 97년부터였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연철수

### "27일부터 비료 30만 톤" 복송

### 한원상 韓赤충재 밝혀

한원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6일 대북 비료 지원과 관련, "이달 27일부터(북한에) 비료를 보내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해에는 2월말에 시작했는데 올해는 좀 늦어서 6월이 되어야 끝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에는 통일부와 MOU(양해각사)를 맺어서 구매, 선박 마련 등을 한쪽이 다 맡아서 한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비료 지원과 관련, 15일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북한이 제2차 장관급회담에 이어 지난 7일 적십자 채널을 통해 공식 요청한 양인 30만톤을 전부 지원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철수

### "신당 창당 주도해 나가겠다"

### 강운태씨 본격 대선 행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전 국회의원은 16일 "빠르면 상반기내, 늦더라도 9월경 새로운 정당인 창당할 것이며 신당 창당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순천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정당 창당에 대해 정치 참여형 봉사단체인 '빛나는 대한민국 연대'를 만들었으며 이 단체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세를 키운 뒤 새로운 정당인 생기면 어느 정도 정치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새로운 정당은 내가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봉사"를 콘셉트로 한 큰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필수기자 who@kwangju.co.kr

## 빅마트, 롯데쇼핑에 팔렸다

### 본점·매곡·화순 3곳 제외 800억원에 매각

광주·전남지역 향토 유통업체인 ㈜빅마트(대표이사 하상용)가 롯데쇼핑에 분리 매각됐다.



빅마트는 16일 "주요동 빅시터와 매곡동 비엔날레 점 등 2개 점포와 빅마트 쇼핑몰을 제외한 14개 점포와, 광산구 송정동 1개 점포 부지를 롯데쇼핑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도 이날 공시를 통해 "800억 원에 이들 점포와 부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영업권 및 인원의 포괄승계'를 내용으로 한 영업양수 결정을 했다"며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빅마트 매각으로 관심을 모았던 2건여명에 달하는 종업원들의 고용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신선식품과 지역 중소기업 상품을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 빅마트의 기존 협력업체 1천여곳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협조키로 양측이 의견조율을 보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분리 매각으로 빅마트는 2개 점포와 화순점 부지만 직접 운영하게 됐으며, 롯데쇼핑은 인수한 빅마트 점포를 '롯데슈퍼'라는 브랜드로 대형슈퍼마켓(SSM)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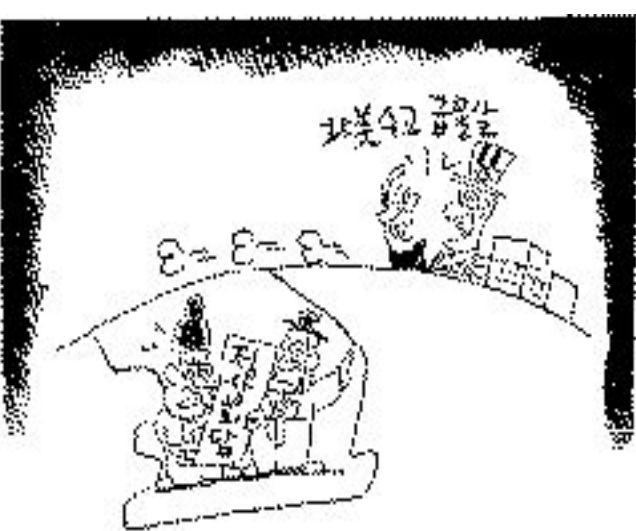
지난 95년 설립된 빅마트는 토착업체로는 유일하게 국내 대형마트 순위에서 15위를 기록하는 등 중견 유통업체로 성장했으나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그동안 유통성 위기를 겪었다.

한편 빅마트는 구체적인 매각 협상내용과 매각 배경, 향후 빅마트 진로 등에 대해서는 19일 오전 11시 종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빛日만평

- 김중두



지금도 신경 쓸 겨를도 없겠다

## 박지원, DJ 비서실장으로 동교동 컴백

### 한반도 해빙 무드 맞물려 역할 주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6일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동교동 복귀'를 공식화했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인 김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며 "박 비서실장은 김 전 대통령의 강연, 저술, 해외방문 등 국내외 각종 활동을 보좌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9일 특별사면 조치를 받은 뒤 '사면소감'을 내고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한 대로 동교동으로 돌아간다. 김대중 대통령님 내외분을 곁에서 모시는 것으로 제 소명을 다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통령도 2006년 4월 개최된 '김대중평화센터' 정기이사회에서 박 전 장관을 이사



장 비서실장에 임명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박 전 장관의 사면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공식임을 보류했고, 사면조치가 이뤄지고 난 뒤 약속했던 대로 다시 자신의 곁으로 박 전 장관을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 전 장관은 2003년 6월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된 뒤 4년 가까이 만에 공식직함을 갖고 김 전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최근 보여준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주문하고 있는데다 북미관계 정상화 움직임 등 한반도 해빙무드와 맞물려 김 전 대통령 역할론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박 전 장관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총무부 2200-511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대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